

# ‘청소년·청년의 해’ 3개년 계획에 대한 의견

사목기획실에서는 [‘청소년·청년의 해’ 3개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본당 주임 사제, 부주임 및 보좌신부, 사목평의회 위원의 소속 수도회, 본당 대표 전교 수녀, 본당 회장 및 제단체장, 본당 교리교사 대표, 본당 청년회장, 가톨릭 학생회 대표 등을 대상으로 [Google Forms]로 작성된 설문조사 양식을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발송하여 설문(서술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지난 8월 2일(수)에 시작된 해당 설문조사는 8월 25일(금)에 마감되었다.

## 1. 환대, 경청 / 본당 차원

### 1-1. 성직자 - 본당 주임 사제

- **(재정지원)** 청소년, 청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함.
- **(교구지원)** 교구에서 청소년, 청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면 좋겠음.
- **(행사)** 본당 청소년의 날, 청소년 신앙토론, 과거 활동했던 청소년/청년들이 홈커밍데이 등을 통해 다시 모일 기회를 제공함.
- **(모임)** 본당 사제와 수녀가 매주 젊은이 모임 참여하여 함께 시간을 가짐. 청년회 활성화를 위한 기도모임(청년 체나콜로)이나 청년 소공동체 모임을 추진함. 청년 레지오 단원과 정기적 만남을 가짐.
- **(참여)** 새로 온 청년과 복귀한 청년을 청년회 SNS에 초대하고 청년회 정보, 전례 역할 분담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일방적 신앙교육 보다 청소년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는 신앙 프로그램이 필요함.
- **(경청)**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함.
- **(젊은이부족)** 본당마다 젊은이 수의 격차가 커서 사목지침 실천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역 내 냉담 중인 청년부터 환대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음.

### 1-2. 성직자 - 부주임, 보좌

- **(재정지원)** 청소년분과에 대한 예산 지원을 증액하거나 본당 예산의 일정 비율을 확정적으로 지원함.
- **(교구지원)** 교구 청소년사목국에서 각 본당 사목 방문을 실시하고, 본당 차원에서의 ‘젊은이의 날’ 행사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함. 또한 환대/경청/동반에 대해 이해를 돕는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교구의 ‘청년임원단 연수’와 같이 마음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좋겠음.
- **(전례)** 월 1회 가족미사를 장려하며, 이를 중심으로 가정 축복식, 혼인기념일 맞이 축복식, 교리교사 임명식 등을 시행함.
- **(행사)** 본당 차원의 ‘젊은이의 날’을 각 본당의 상황에 맞게 개최함. 또한 본당 구역 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관 방문하고 지원함.

- **(교육)** 가정에서 전수되어야 하는 신앙교육을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리교육이 필요함. 또한 성경과 교리 등 고전적인 교육과 청년들에게 필요한 강의(강점 찾기, 뇌과학 등)를 접목한 형태의 접근도 필요함.
- **(환경조성)** 청소년과 청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창구 마련 등 각 본당에서 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함.
- **(방문과모임)** 사목자가 정기적으로 청소년, 청년 만남의 자리를 준비하고, 본당 구역 내 청소년, 청년 가정 방문을 통한 방문 사목을 활성화함. 또한 교사회와 청년회를 각 단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 모두 같은 청년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만남의 시간을 구성함.
- **(시스템점검)** 23년 준비의 해를 보내면서 동반과 경청에 대해 충분히 언급하였기에 이 부분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 부족한 부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함. 또한 환대와 경청을 위해 젊은이들의 요구를 설문 조사한 후에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기재되었으면 함. 사제와 수녀, 교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일학교가 아닌 적어도 중3 이상의 학생들은 자치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 **(젊은이부족)** 본당마다 젊은이에 대한 지원과 상황이 달라, 본당 차원에서 자체로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희의적)** 소수 젊은이의 희생으로 운영되는 본당 청년회의 경우 많은 행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해임에도 당사자들이 부담을 안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부작용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음.

### 1-3. 수도자 - 전교수녀, 수도회

- **(재정지원)** 개신교에 비해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음.
- **(소통)** 청소년이 본당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청소년 상호간, 그리고 청소년과 본당 사목자의 소통이 중요함. 또한 청년들의 생각과 그들이 추구하는 미래의 삶에 대하여 대화하고 경청하여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야 함.
- **(이해)** 청소년/청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프로그램)** 청소년에게 공부와 신앙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영어교실, 성경교실 등)이 필요함. 그리고 '본당 청년의 날'을 마련하여 소외된 청년들을 초대하고 대화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음.
- **(사제의 관심)** 청년에 대한 본당 사제의 관심이 부족하여 본당에서 청년들이 소외되고 있으며, 본당 사제부터 경청과 환대가 너무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됨.

### 1-4. 평신도 - 본당 회장, 제단체장

- **(재정지원)** 청소년/청년에 대하여 본당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교육, 피정, 세미나, 동아리 활동 등)하고 본당 사제 및 수도자들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함.
- **(사제의 관심)** 본당 청년 모집 및 활성화에 본당 사제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함.
- **(본당활동 참여)** 월 1회 청년이 주관하는 교중미사를 거행하고, 그들이 본당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할 필요가 있음.

- **(환경조성)** 청년들이 본당 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함.
- **(기성세대와의 관계)** 본당의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그들의 문화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함. 청소년들은 타인의 말을 귀담아듣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함.
- **(행사)** 각 본당 청년 모임 멘토 및 후원단체를 지정하여 결연, 본당 사목회와 청년회 간 정기 교류회 등을 실시함. 본당에서 청소년 나들이 미사나 소풍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즐겁게 교회에 모일 기회를 제공함.
- **(프로그램)** 고등학생들이 졸업 후 청년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회에 환대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1-5. 젊은이 - 교리교사, 청년회, 가톨릭학생회(대학생)

- **(본당지원)** 본당 청년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본당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건의 사항을 경청 해주면 좋겠음.
- **(행사)** ‘본당 젊은이의 날’을 개최함. 이를 위해서는 청년회나 청소년분과에 국한되지 않고 본당 전체의 지원이 필요함.
- **(지속성)**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본당에서도 작은 역할부터 부여하여 청소년/청년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겠음.
- **(참여권유)** 청년미사에 참례하는 젊은이뿐만 아니라, 새벽, 교중미사에 참례하는 젊은이도 환대하고 청년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경로가 필요함. 본당 어른 신자들의 자녀가 청년회 또는 주일학교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면 좋겠음.
- **(기성세대와의 관계)** 청년들은 꾸준히 미사 참례하는 것, 청년회로 소속감 가지는 것부터가 신앙심을 굳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기성세대는 이 부분을 너무 당연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청년들을 부담스럽게 함.
- **(활동)** 냉담 중인 청년들에게 먼저 손 내밀기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본당 소식이나 교구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함. 본당 내에서 젊은이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청년 주최의 활동이 있으면 좋겠고,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지 않는 문화 활동(굳이 성가나 성경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이 필요해 보임.
- **(회의적)** 청년회가 없거나 청년이 거의 없는 본당은 “청소년·청년의 해”가 큰 의미 없이 다가올 수 있음. 젊은이가 먼저 본당에 모이는 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본당에서는 “청소년·청년의 해”나 젊은이의 날에 관하여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고 있음.

#### ■ [종합] 1. 환대, 경청 / 본당 차원

[환대, 경청 / 본당 차원] 부분에서는 본당 주임 및 부주임/보좌 신부, 전교수녀 및 수도회 대표로 구성된 수도자, 본당 회장 및 제단체장으로 구성된 평신도의 가장 우선시 되는 답변이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본당 재정지원 확대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교리교사, 청년회, 가톨릭학생회로 구성된 젊은이 다수의 의견은 본당에서 청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그들이 원하는 건의 사항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견을 주었다.

재정지원 확충으로 본당 내 부족한 청년들을 모집하자는 기성세대의 의견과 어른들의 관심과 경청이 필요하다는 젊은이들의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청년들은 꾸준히 미사 참례하는 것, 청년회로 소속감을 갖는 것부터가 신앙심을 굳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데 기성세대는 이 부분을 당연히 갖추고 있다고 바라본다는 의견이 눈에 띈다. 이러한 관점에서부터도 상호 간의 대화와 경청이 필요해 보인다.

## 2. 전례, 교육 / 지구 차원

### 2-1. 성직자 - 본당 주임 사제

- **(지구차원)** 지구 담당 사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청년회를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모임)** 지구 차원의 젊은이 미사와 영성 교육을 시행하고, 청년회 피정 및 지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함.
- **(프로그램)** 지구연합 프로그램(청소년/청년 성가제 등)을 다양화함.
- **(교육)**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상세한 전례 교육이 필요함. 청년들이 교육과정과 내용이 없는 교구의 주일학교 교육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연구와 방법을 모색해야 함.
- **(회의적)** 지구에 자체 전문기구가 없는데, 지구 차원의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또한 지구 중심적인 행사나 계획이 지속적일 수 있는지 의문임.

### 2-2. 성직자 - 부주임, 보좌

- **(재정지원)** 지구 청소년 모임 행사 예산을 확대함.
- **(교구차원)** 본당 별로 실시할 수 있는 좋은 예시를 취합하여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좋겠음.
- **(전례)** 젊은이들을 위한 짧은 기도문을 마련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함. 또한 미사와 함께하는 성무일도나 성체현시, 생활성가 밴드와 함께하는 미사, 정기적으로 지구 내 본당을 순례하는 주일학교나 청년미사를 실시했으면 함.
- **(프로그램)** 정기적인 지구 청소년 미사를 토대로 한 지구 신앙학교를 운영함. 또한 청소년은 지구 단위로 복음과 함께하는 캠프를 운영하고, 청년은 청년신앙캠프, 지구 청년 성가축제 등을 준비하여 일반 신자를 초대하는 '찬양의 밤'을 마련함.
- **(교육)** 전례단 및 복사단 교육을 지구 차원에서 실시하고, 전례 안에 능동적인 참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또한 지구 단위에서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주일학교 거점 본당을 지정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부여 및 전례 복장을 제공했으면 함.
- **(환경조성)** 지구 내 청소년/청년 또래 문화를 함께 즐기고 봉사하면서 또래 공동체를 형성하는 '또래 사목'을 활성화함.
- **(체험)** 기도 교육 및 체험(렉시오디비나, 성체조배, 떼제기도 등), 수도원 영성 체험을 실시함. 또한 지구 청소년/청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및 나눔, 체험의 장을 마련함.
- **(시스템점검)** 지구 청년의 기준을 청년회로 한정 짓기보다 지구 내 청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본당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바탕이 된 다음, 각 본당 청소년/청년이 인근 본당 공동체와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함.

- **(회의적)** 지구 단위 행사는 냉담자와 비신자가 배제되므로 지구 중심의 사목계획은 과감하게 포기했으면 함. 그리고 지구마다 부주임/보좌신부 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지구 청소년 담당 사제의 업무가 가중된다고 생각함. 현재 이미 지구 차원의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행사와 지구 젊은이의 날을 병행하는 것은 지구 행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큼.

### 2-3. 수도자 - 전교수녀, 수도회

- **(성인교육)** 청소년/청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은 이들이 전례와 교리에 대해 무지함을 보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신자재교육 차원의 교리 및 전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함.
- **(프로그램)** 청소년이 공부와 신앙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영어교실, 성경교실 등)을 개발하거나 젊은이가 고민하는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 **(교육)** 사제들에 대한 전례 교육이 우선시되었으면 함. 또한
- **(개발)** 전례의 참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게 하면서도 전례가 지루하지 않게 청소년의 문화가 접목될 수 있는 아이디어의 개발이 필요함. 그리고 말씀을 접하는 청년들 어려워하지 않도록 렉시오 디비나, 성서100주간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함.
- **(상호이해)** 청소년/청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2-4. 평신도 - 본당 회장, 제단체장

- **(지구차원)** 지구별 전례와 교육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도 사제를 지정함. 청년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 및 피정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지구 청년 미사를 활성화함.
- **(전례)** 청년의 감성이 묻어 나올 수 있도록 전례의 개혁이 필요하며, 청년들이 전례 봉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프로그램)** 지구별 청소년 성가 합창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그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의 유대감 강화에 힘씀.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청년을 위한 강연을 많이 시행했으면 함.
- **(기성세대와의 관계)** 사목적 지원에 비해 청소년/청년의 소극적 자세가 걸림돌이 되고 있음. 본당 사목위원 및 간부들이 청년 미사 참례하기에 동참하는 등 기성세대가 젊은이 바로 알기를 위해 노력해야 함.

### 2-5. 젊은이 - 교리교사, 청년회, 가톨릭학생회(대학생)

- **(프로그램)** 지구 청년들이 서로 친교를 나누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정기적인 프로그램(본당 별 성가대회, 체육대회 등) 마련이 절실함. 또한 '지구 젊은이의 날'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전례 피정 등을 구성했으면 함.
- **(교육)** 기초적인 전례 교육(지구별 전례 교육, 미사 순서 등)과 청소년/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강의식 교육이 아닌 게임 형식 또는 영상시청을 통한 교육)이 필요함. 교구에서는 교육에 대한 지구 커리큘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음. 지구마다 상황이 달라 통일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 예시가 필요함.

- **(회의적)** 본당 내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음. 지구 교사, 청년들이 노력해도 지구 담당 사제가 관심이 없거나 방관할 때가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음.

### ■ [종합] 2. 전례, 교육 / 지구 차원

[전례, 교육 / 지구 차원]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전례 교육, 지구별 전례 및 행사, 지구 프로그램 구성 등의 요청이 다수 있었다. 특히 청소년, 청년을 주로 담당하는 부주임 및 보좌신부들이 전례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구 차원의 사목지침에 있어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성직자들은 지구 내 청소년, 청년을 위한 전문 기관이 없는데 지구 차원의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 또한 지구 중심적인 행사나 계획이 지속적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지구마다 부주임, 보좌신부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지구 청소년 담당 사제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이미 지구 차원의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행사와 지구 젊은이의 날을 병행하는 것은 지구 행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가속화 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기성세대인 평신도의 시각에서는 사목적 지원에 비해 청소년, 청년의 소극적인 자세가 본당 활동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기성세대가 젊은이를 바로 알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젊은이들은 본당 내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고, 지구의 주일학교 교사나 청년들이 노력해도 지구 담당 사제가 관심을 두지 않거나 방관할 때가 있다고 언급했다.

### 3. 선교, 봉사, 나눔 / 교구 차원

#### 3-1. 성직자 - 본당 주임 사제

- **(재정지원)** 청년선교사교육 및 활동 지원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교구지원)** 교구에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산, 바다의 쓰레기 줍기 행사, 교구 내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을 개발하고,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본당 차원으로 확대(전문가 파견 등)해야 함. 또한 교리교사나 청년이 부족한 본당에 실질적으로 도움(교리교사 파견, 미사 찬양팀 또는 전례팀 파견)이 되는 지원이 필요함.
- **(교육)** 기존의 청년교육을 홍보하여 참여시키고자 노력함. 2~3개 지구연합으로 '청년 사회 교리학교'를 개설하면 좋겠음.
- **(우려)** 현실에 맞는 활동의 다양한 연구가 가장 시급하며, 급하게 안건만 제시하고 실행하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봄.

#### 3-2. 성직자 - 부주임, 보좌

- **(교구지원)** 교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청년 단체를 홍보 및 지원하고, 교회 내 청소년에 대한 심포지엄 및 이를 토대로 한 부산교구의 청소년 의안을 작성함. 또한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이 활발한 본당에 대한 정보를 타 본당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함. 본당 및 지구 차원에서 경청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이를 토대로 교회가 젊은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선포하도록 준비함.
- **(전례)** 교구 젊은이의 날 전례 봉사자를 공개 모집(본당 내 전례 녹화 및 녹음본 제출, 본당 사제의 추천서)하고 이들에 대한 비정규 자격 부여 및 인증서를 발급함. 또한 각 지구 청소년들이 타 지구 성당을 방문하여 미사 참례하고 레크레이션 업체에 의뢰하여 친교행사를 진행함.
- **(프로그램)** 청소년/청년 성가제를 개최하거나 신앙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
- **(환경조성)** 교구 중심지와 지역 교구민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배려함. 또한 젊은이들이 형제들간의 친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획하면 좋겠음.
- **(체험)** 지역사회와 연대한 봉사활동 체험을 시행함.
- **(방문과모임)** 교구 내 복지 시설을 방문하거나 관련 시설을 각 본당에 알림. 또한 타 교구 청년들과의 만남을 바탕으로 한 모임도 가끔 이루어지면 좋겠음.
- **(시스템점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교사들까지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가 필요함. 또한 교구 차원이라고 해서 본당 및 지구 차원에서의 목표가 달라져서는 안 됨. 2022년 교구 젊은이의 날이 잘 이루어졌으므로 피드백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함.

### 3-3. 수도자 - 전교수녀, 수도회

- **(행사)** 교구 내 본당이나 지구별로 그룹을 형성하여 계절별 수련회나 행사를 준비하면 좋겠음. 행사 시 부스를 운영(수도회 소개, 기도모임 소개, 교육 프로그램 소개 등)의 하고 토크 콘서트(신앙체험 및 영성생활 나눔, 교리에 대한 질의응답 등), 찬양 콘서트 등을 실시함.
- **(프로그램)** 봉사나 나눔의 기회를 가질만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정의평화창조질서보전(JPIC)'과 관련된 행동을 함께해보도록 장려함. 그리고 타 종교의 젊은이들과의 친교를 통해 가톨릭 신앙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 **(해외선교)** 타 종교와 같이 해외선교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기회를 제공함.

### 3-4. 평신도 - 본당 회장, 제단체장

- **(교구차원)** 교구 차원에서 우수 선교, 봉사, 나눔 사례를 발굴하고, 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포상, 우수사례를 전파함. 그리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봉사활동(자비 포함 교구 지원을 통해 해외 봉사 파견 지원, 부산시 및 국내기관과 연계한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함.
- **(행사)** 교구 차원의 축제가 지구를 중심으로 연계되어 젊은이들이 신앙 안에서 결속되고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음.
- **(자발적참여)** 청소년/청년이 주최되어 스스로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3-5. 젊은이 - 교리교사, 청년회, 가톨릭학생회(대학생)

- **(프로그램)** 교구에서 본당 또는 지구 차원의 선교 및 봉사 커리큘럼이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주었으면 함. 또한 아크카나 포콜라레 같은 행사나 모임에 대해 청년들이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교구 행사뿐만 아니라 신심단체 행사 및 활동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면 좋겠음.
- **(봉사참여)** 청소년/청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 리스트 및 기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음. 또한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가톨릭 복지단체 등을 교구에서 주보를 통해 소개하여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면 좋겠음.
- **(모임)** 청소년/청년 각 또래의 친목 동호가 지속되었으면 함.
- **(홍보)** 성당에 나오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함.

## ■ [종합] 3. 선교, 봉사, 나눔 / 교구 차원

[선교, 봉사, 나눔 / 교구 차원] 부분에서는 청소년, 청년을 위해 교구 차원에서 실시했으면 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에 대한 의견이 다수 있었다. 그중에서 젊은이들의 경우 교구 내 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 및 홍보가 잘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는 청년들이 교회 활동에 무관심해서라기 보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구에서 교구 내 청소년,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신심단체, 봉사활동이 필요한 기관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홍보는 검토 후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4. “청소년·청년의 해” 3개년 계획에 대한 추가 의견 또는 건의 사항

### 4-1. 성직자 - 본당 주임 사제

- **(교구차원)** 첫째 해는 ‘파악과 연구’, 둘째 해는 ‘계획’, 마지막 해는 교구 차원의 큰 행사로 각 지구와 본당에서 실천해야 할 것에 대한 제시로 3개년 계획이 이루어지길 희망함.
- **(교육)** 부모 교육을 다방면으로 실시해야 함.
- **(개발)** 기존의 활동을 강화할 것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할 것인가 고려해야 함.
- **(변화)** 본당 주일학교 지속이 어려우므로 주일학교를 가정학교로 변화하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미혼 청년회에서 기혼부부(45세 이하)와 함께하는 청년회로 전환해야 함. 이 시대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을 교회가 먼저 찾고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함.
- **(젊은이부족)** 청소년/청년이 적은 본당은 연합, 방문 등을 통해 다 함께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목지침이 되도록 지원해야 함.
- **(외의적)** 교회는 사회처럼 현실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니 청소년, 청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도 말을 건네기도 쉽지 않은 형편임. 시대가 변했고 젊은이들은 이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을 설득할 충분한 연구와 대책을 마련해서 3개년 계획을 세운 것인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끌어모아 보자는 것인지 그 의도를 모르겠음. 세상은 변했는데 교회는 예전 방식 그대로 하고 있음.

### 4-2. 성직자 - 부주임, 보좌

- **(재정지원)** 본당 예산의 4%를 청소년분과에 편성하는 등 담당자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폭적인 권한과 예산이 부여되면 좋겠고, 이를 교구 지시사항으로 관리 감독해주었으면 함.
- **(교구차원)** 교구는 본당이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면 함. 또한 교회가 청년들의 유입을 원하고자 한다면 그들을 사목하기 위한 전문적인 방안 및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 **(교육)** 단순히 신앙 차원의 가르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이 첨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인지)** 일회성의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행사의 성패 여부는 신자들의 ‘신앙 고취’에 달려있음을 인지해야 함. 청소년/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들이 현시대에 도전받는 과제들에 공감하고 복음의 관점으로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음.
- **(환경조성)**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3년이 될 수 있도록, 젊은이와 젊은 사제들이 존중받고 교회가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길 바램. 또한 ‘청소년 사목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인식부터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함.
- **(자율성)** 본당과 지구의 역량이 모두 다르므로 각자 자율에 믿고 맡기면 그 안에서 다양한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라고 믿음.
- **(시스템점검)** 본당과 지구가 나름의 계획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곳이 있으나 교구

에서 내놓는 방침 또는 정책이 잘하고 있는 본당이나 지구의 흐름을 끌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음. 일선의 사목자들이 긍정적인 영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주면 좋겠음. 본당 차원에서는 6개월 단위로 피드백을 얻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음.

- **(의의적)** “청소년·청년의 해” 3년의 개념을 본당, 지구, 교구로 늘리면 결국 행사의 규모만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염려가 있고, 핵심주제와 실천사항의 연관성을 읽기 힘들.

#### 4-3. 수도자 - 전교수녀, 수도회

- **(접근성)** 창조적이고 활발한 주제(음악 등)로 젊은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교육)** 주일학교 교사들에 대한 교리교육이 필요함.
- **(협력)** 서울대교구의 ‘햇살사목센터’라는 청소년/청년교육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음.
- **(지원)** 청년들이 고민하는 내용(미혼모 상담 및 보금자리 마련, 취업 등)에 대해 교회가 함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
- **(프로그램)**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나 현대적 사물을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년기에서 벗어나 중년기가 되기 전의 미혼 혹은 혼인 남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함.

#### 4-4. 평신도 - 본당 회장, 제단체장

- **(부모의 역할)**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교육을 통해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되어야 함.
- **(프로그램)** 청소년/청년이 취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좋겠음. 취미 공유를 통해 지속적인 만남과 믿음의 연결고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 **(기성세대와의 관계)** 청년들을 레지오 회원으로 초대하여 성모님을 알게 함. 본당 청년들이 전신자들과 어울려 교회 안에서 함께 걸었으면 함. 기성세대가 청소년/청년과 너무 분리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함께하는 공동체적 전례가 필요함.
- **(구분)** 청소년과 청년은 신앙생활 여건과 특성이 전혀 다르므로 분리해야 함.
- **(연계)** 2027년 세계청년대회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청소년·청년의 해” 3개년을 체계적으로 계획해 나가면 좋겠음.
- **(사제의 관심)** 본당 사제의 적극적인 의지와 호응이 중요함.
- **(홍보)** 전 교구민이 다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구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4-5. 젊은이 - 교리교사, 청년회, 가톨릭학생회(대학생)

- **(교구지원)** 교구에서 청소년/청년 관련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활동을 리드하는 역할자가 있으면 함.
- **(교류)** 청년들이 타 본당과 교류하여 더 많은 젊은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도록 신앙인끼리 만나고 배울 수 있는 만남의 장이 필요함.

- **(세대구분)** 본당 청년회 내 기혼자 회원과 미혼자 회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연령대와 상황에 맞게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기혼자와 미혼자 회원 간의 불화와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함.
- **(활동)**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록하고, 기록지는 교구 차원에서 그룹 나눔을 통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과정이 있으면 함. 또한 청소년/청년이 교회의 미래임을 인지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여 시청 후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봄.
- **(홍보)** 청소년사목국 SNS에 사목국 관련 활동 및 소식을 자그마한 것이라도 게시하면 좋겠음. 타 교구들은 SNS를 매우 잘 활용하고 있는데 부산교구는 이런 부분이 아쉬움. 또한 젊은이 후보를 타 교구들처럼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 완전히 전환해도 좋겠다고 생각함. 현재는 청년 전용 후보가 아닌, 교리교사, 부모, 청년 등 대상이 섞여 있음.
- **(환경조성)** 지구별 혹은 권역별 교육관이 있으면 좋겠음. 오픈 채팅이나 온라인 상담으로 본당 및 지구 내 문제점, 신앙 고민 등을 받는 창구가 있으면 좋겠음. 젊은이의 날 같은 일회성 행사보다 젊은이들이 성당에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음.
- **(목적모호)** 청소년 청년의 해 3개년 계획의 목적이 청소년과 청년의 수를 늘리자는 것인지, 기존 신자를 유지하고 활성화하겠다는 것인지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음.

#### ■ [종합] '청소년·청년의 해' 3개년 계획에 대한 추가 의견 또는 건의 사항

[청소년·청년의 해' 3개년 계획에 대한 추가 의견]에서는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었다. 그중 눈에겨볼 의견은, 본당 주임사제의 의견에서 본당 주일학교 지속이 어려우므로 가정학교로 변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을 교회가 먼저 찾고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부주임, 보좌신부의 의견에서는 교구가 본당에서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면 하며, 교회가 청년들의 유입을 원하고자 한다면 그들을 사목하기 위한 전문적인 방안 및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수도자들의 의견에서는 청년기에서 벗어나 중년기가 되기 전의 미혼 혹은 혼인 남녀들을 배제해서는 안되며,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젊은이들은 교구에서 청소년, 청년 관련 전문인력을 파견, 그들의 활동을 리드하는 역할자가 있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었고, 타 본당 청년들과의 교류가 활발했으면 한다는 의견, 청년들이 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지는 교구 차원에서 그룹 나눔을 통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과정이 있으면 한다는 의견, 오픈 채팅이나 온라인 상담으로 본당 및 지구 내 문제점, 신앙 고민 등을 받는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여러 의견 중 사목자와 젊은이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본당 주임 사제들은 부족한 청년 수를 확보하고자 '미혼 청년회'에서 '기혼부부와 함께하는 청년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젊은이들은 본당 청년회 내 기혼자 회원과 미혼자 회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연령대와 상황에 맞게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기혼자와 미혼자 회원 간의 불화와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